

전국 고교생의 문예창작기량을 함양하고 문예 장학생을 발굴하기 위해 우리학교가 주최하고 대학주보와 국어국문 학회가 주관한 제33회 전국 고교 문예 현상공모가 열렸다. 4백여명이 지원한 이번 대회에서 조수경(정의여고 3)의 소설 '흙'이 대상을 차지했다. <편집자>

수상소감

어릴적부터 글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그만 책상앞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쓰고 있으면 시간은 줄을 몰랐습니다.

방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펜을 놓은지는 이미 오래전이었습니 다.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일년 반의 방학속에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다시 글을 쓰기로 다짐하면서 부터였습니다. 글을 쓸때에는 모든 잡념을 잊을 수 있고 얼마동안에 안겨 있을 때와 같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택한 것이 옳은 것이라면 평생 글을 쓰며 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글을 쓰며 살아갈 앞날에 길을 열어줄 이번 기회에 욕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제 이름이 불려진 것을 평생 잊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공부해야 할 것이 많은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시고 제 앞날에 희망을 주신 심사위원님들, 제게 많은 관심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 사랑을 가르쳐주신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 상
흙

조수경 (정의여고 3)

평일이 때문일까. 지나가는 사람없이 한적하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차가운 파도 소리뿐인 겨울바다 앞에서 나는 잠시 당황했다. 작년 여름 이곳에 다녀갔을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어미배에 바글바글 붙어있는 개새끼들처럼 모래사장을 가득 채우던 사람들이 없자 바다는 조용하고 쓸쓸하기만 했다. 차가운 모래위에 덜컥 앉았다. 바다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스치고 지나갔다. 푸근하게 풍겨오던 찜조름한 바다내음과 모래알갱이의 간질거림도 차가운 바람에 묻혀 저 멀리 날아가 버린다.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드는 바람을 머리가 아찔해지도록 들이마셨다. 바람은 뜨거운 뱃속을 휘돌고 척추를 타고 올라가 머리속에서 뱅뱅돈다. 상쾌하다. 척추가 으스스하고 떨릴때마다 가슴속에 풍광 쌓여있던 답답한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듯한 쾌감을 느꼈다. 하얀 파도가 눈처럼 모래알갱이 속으로 녹아드는 것을 바라보며 일어섰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한 남자가 비틀거리고 있었다.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다 쓰러지고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 비틀거렸다. 보기좋은 광경은 아니었다. 반대편을 향해 하얀파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등 뒤에선 남자의 노랫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저 노래...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 내가 어릴적 아버지가 화단을 가꾸며 부르시는 것을 자주 들은 기억이. 아버지는 화단 가꾸는 것을 좋아하셨다. 언제고 시간이 날때면 화단 앞에 주그리고 앉아서 자갈한 꽃들을 이루만지곤 하셨다. 꽃 뿐 아니라 마당 가엔 자그마한 사과나무, 꽤 오래된 갈나무며 몇 그루의 나무도 있었다. 아버지가 그것들을 돌볼때 나는 근처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흙을 주물럭이고 지나가는 개미를 손으로 고평 놀리려고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해가 어스름이 질 무렵 흙손이 된 아버지는 나를 번쩍 안아들고 더러워진 얼굴이며 손을 씻겨주곤 하셨다. 꽃을 돌볼때처럼 손가락 하나하나를 뽀뽀뽀뽀 닦아 주셨다. 그렇게 씻고 아버지 품에 안겨 집으로 들어갔다. 언제나 아버지 품에선 콧속을 찌르는 듯한 흙냄새가 났다.

하아, 조금 전에 한것같이 바람을 크게 들이마셨다. 바람은 뱃속으로 전달되기도 전 가슴에서 콧마쳐 스르륵 사라진다. 모래 위로 쓰러지듯 누웠다. 벌어진 입속으로 모래알갱이가 굴러들어왔고 거친 숨을 들이 쉴때 흙 속의 역한 냄새가 콧 속을 찌르며 들어왔지만 그대로 모래위에 누워있었다.

어제 오빠를 보았다. 십여년 만인가. 나이가 한참 위인 오빠는 나와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었다. 오빠의 어머니되는 사람은 흙이 싫어 도시로 떠났다고 했다. 평생 손에 흙을 묻히며 사는 아버지와는 답답한 살수 없다는 것이다. 오빠의 어머니가 도시로 간 몇년후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와 재혼했다고 나를 낳았다. 나의 어머니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와 내가 마당에 있는것을 방 안에서 지켜보곤 하셨다. 어머니는 순종적인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묵묵히 따르고 심지어는 오빠의 말에도 늘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오빠의 어머니가 도시로 떠난것이 다 새어머니 때문이거라고 한듯 어머니를 미워했고 나 또한 증오의 대상이었다. 언젠가 동네 남자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때였다. 그 아이들이 나무가지에 뽕을 걸쳐 나를 위협하고 있을때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구원자라도 만난듯 반갑게 오빠, 하고 불렀을 때 동네 아이들이 주춤했다. 오빠가 나서서 동네 아이들 불기작을 한 대씩 후려치길 기대하던 나에게 오빠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난 너의 오빠가 아냐. 그 말을 흘리듯 하고 가버렸다. 그때 난 오빠의 얼굴에서 모나리자의 미소를 보았다. 회사동료들과 유럽 여행을 갔을 때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았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런 푸근하고 우아한 미소는 아니었다. 그것은... 섬뜩하기까지 한 조소였다. 그림을 보면서 먼 옛날 오빠의 웃음을 생각했던 것이다. 오빠는 커갈수록 점점 거칠어졌다. 언젠가 아버지를 '이 늙은이'라고 부르며 대든 적이 있었다. 아버지의 매를 맞으면서도 표독스런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를 밀쳐냈다. 방 안에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 두루뭉개며 떨던 나는 그 날밤 오빠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도시로 떠난 오빠의 어머니에게로 가버린지 십여년. 오빠는 이제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으로 아버지의 장례식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모래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얼굴엔 눈물과 모래가 온사모자이크라도 하는 듯 다다다닥 붙어있었다. 고개를 좌우로 사정없이 흔들며 왔다. 그래 잊자. 잠시라도... 아무렇게나 나뒹굴어진 가방을 주웠다. 모래 냄새로 손들만한 조개가 스죽은 듯 모양을 드러내고 있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고만고만한 조개들이 하나 둘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모래 속을 휘저은 결과로 얻은 커다란 소리를 귀에 대고 눈을 감은 채 걸었다. 내가 성장해 도시로 떠날때 아버지와 이 길을 걸었다. 아버지는 소라 두개를 찾아내어 하나를 내 컵가에 대주었다. 그리곤 부드러운 음성으로 무슨소리가 들리니, 하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기 전 아버지는 말하셨다. "도시엔 이런 곳이야 이 소라 소리를 잘 들어봐라. 처음엔 바람소리 마냥 스스스스스하지만 한참을 주위길게 들으면 금세 저 파도소리가 들리잖나."

도시엔 그렇단다. 그저 스스스스 바람소리만 내는 그런 곳이야." 정말 그랬던가. 도시에서는 흙에서 뿜궂궂하는 달리 뻗는 눈을 뜨며 살아왔던가. 이 곳으로 내려오기 며칠 전 꿈을 꾸었다. 어릴적 모습인 나그네 작은 손으로 흙을 뭉개고 있었고 아버지는 예전처럼 화단에 주그리고 계셨다. 얼굴에 묻은 흙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며 칭얼거렸다. 아버지를 아무리 불러봐도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으셨다. 몸을 일으켜 아버지 걸음으로 갔다. 웅크리고있는 아버지는 꽃을 어루만지기도, 물을 주지도 않으며 가만히 흙 속에 손을 얹은채로 그렇게 있었다. '아버지', 조금은 불안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역시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 어깨 위로 손을 얹으려 할 때 아버지는 부스스 부서져내려 흙이 되었다. 어느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꿈에서 아버지를 부르다 전화벨 소리에 놀라 잠이 깨었다. 어머니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침착하게 아버지의 죽음을 전했다. 그걸로 이곳으로 내려왔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있던 날, 굳게 닫힌 관을 열고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아버지가 정말 흙으로 변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바보같은 생각. 아버지의 장례식날 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수 없었다. 나도, 어머니도 그리고 오빠도. 아버지의 관이 깊은 흙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어쩌면 그들보다 나처럼 아버지와 흙은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까. 산에서 내려오며 모두 말이 없었다. 아버지보다 머리하나는 더 큰 듯한 오빠는 검은 양복으로 굳게 쥔 주먹만 불끈잡고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그랬듯 아무말없이 방안에 들어가 마당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화단 앞에 섰다. 이제 너희들을 돌봐줄 이가 없겠구나 작은 채송화와 그 뒤로 놓인 함미꽃들이 바람에 흔들려 기웃기웃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본다. 이제는 제법 줄기가 굵어진 사과나무도... 모두들 아버지의 말없는 자식들이었다. 아버지는 또 다른 당신의 육신위에 말없는 자식들을 기르려한 것이다. 조금의 반항도 없이 물을 주면 뽕아들이고 아무만주처럼 간지럽다는 것이 살랑이는 또 다른 자식들. 이제는 정말 흙이 되었을 아버지. 어쩌면 아버지는 흙이 되어 아버지의 화단에서 영원히 당신의 자식들을 돌보게 될지도 모른다. 말없이 내주는 그 양분을 오빠와 나는 왜 빨아들이지 못했던 것인지...

누가든 소라를 귀에 대었다. 스스스스.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는 금세 파도가 철썩이는 바다소리로 변한다.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가 즐겨부르시던 노래소리처럼 들려왔다. 그 소리를 기억해내 흥얼흥얼 따라해보았다.

제33회 전국 고교문예 현상공모 백일장

심사평

심사위원 : 시 -박이도·김재홍·박주택
산문-조해룡·이미원·김종희(글)

이번 제33회 전국 고교문예 백일장 대회에 응모한 학생의 숫자는 전국 각지에서 4백여명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 예심을 통과하여 본심 백일장에 참석한 학생의 숫자는 모두 73명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시, 산문부문으로 나누어 먼저 문학적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작품내용에 시 또는 소설적 형식력과 주제 의식을 잘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표현력과 문학적 언어의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다.

시에 있어서는 주어진 주제를 얼마나 잘 시작으로 풀어나갔는가, 시 창작 능력의 잠재력이 보이고 있는가 등에 유의하면서, 시적인 구조가 안정되어 있으면서도 문학적 상상력의 진폭을 가진 작품을 높이 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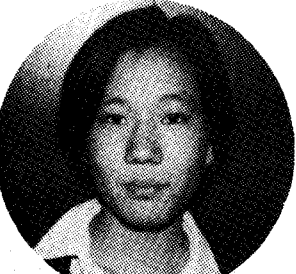
소설의 경우 불필요하게 기성 문인의 흉내를 내기 보다 자기 세대에 알맞는 세계관을 무리없이 표현하고 이야기 구조를 잘 꾸려낸 작품에 더 무게를 두었다.

전체적으로 작점은 수준의 향상을 볼 수 있었으며, 어렵게도 입상에 탈락한 학생들은 꿈을 버리지 말고 더 정진하여 다음에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

수상소감

어릴때부터 그저 '공부 좀 잘하는 모범생' 비슷한 딱지를 붙이고 다녔던 내가 갑자기 고3이 되고 나서부터 자칭(?) '날나리', '사회 부적응자'라는 호칭이 별로 어색하지 않게 되어버렸고, 지금은 백일장에 도전한 것이 숨막히는 입시지옥에서부터 탈출하는 비상구 쪽으로 비겁하게 택했던 방법도 아니었다 하는 쓸쓸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문학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해 마음껏 호흡하고 싶다.

부족한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수작

병든 흙이 부르는 노래
황여름 (과천고 3)

나는 이곳에 누워 있어.
제발 찢어진 내 얼굴을 외면하고 지나가시 말아.
내 몸을 덮고있는 이 외선의 아스팔트의
탐욕스런 햇바닥이 보이지 않나?

지금 난 폐진 코카콜라 병을 입에 물고
날 바라보고 있어.
얼마나지 않은 내 푸른 머리카락들도 차가운 쇠붙이들이 흘리는 붉은 피에 시들어가

언젠가부터 나의 집엔 사람들이 울리고 간
말들이 수습하지 못한 뱀발갈들처럼
구석구석에 치명적 위험한 밤새를 끌고
시간들을 한곳에 고여 탁하게
부패되어 가고 있어.

민어지니?
이곳에도 한때는 꿈들이 피어오르던 때가, 있었어.
아방의 빗방울 흐르는 내 투명한 혈관에
부러내린 은사나무들
내 꿈을 먹고 자라,
아침에 눈뜨면 더욱 깊어진 하늘
하얀 침들 손짓하는 곳으로
부르른 팔을 뻗었지.

물푸레나무들 길어올리는 물안개 속에서
나의 입김은 반역불 되어 해연했어.
수수꽃다리 꽃이피리 위로
작만큼 뽀얀 먼지처럼 내려앉아
차곡차곡 쌓여가고
가끔 호랑이가 한마리 공중에 은빛 실을 풀어
질을 만들면
아, 영롱한 보석들 새카만 빛을 머금고
줄지어 매달려 아름다운 음악소리를 냈었어.

이제는 몸을 뒤돌 수도 없어.
어쩌다 바람이 매연을 싣고 불어오면
폐진 병 주둥아리로

우우우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울음을 울 뿐.

지금엔 매마른 시멘트로 매끈하게 다듬어진
이상한 나무들만이 나의 하늘에
같은 선들을 그려 뽕뽕뽕뽕하고 있어.

내 온몸을 찢으며 부서지는 저 살기어린 평평을
들리니?
그들이 벌써 그 커다란 손톱으로
내 팔꿈치까지 짓뭇내고 있어.

자, 이젠 이리와,
나의 손을 내밀어
내 얼굴을 덮고 있는 이 비닐조각을 치워줘.

그리고 이제 저 조락한 하늘에 린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면
그때는 나의 아픔도 씻겨질 수 있다고,
내 이 한쪽편인 귀에 대고

말해줘.

수상소감

아직도 실감이 안난다. 가작이 불리워지고 우수상 2명중 한명이 불리워졌을 때까지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우수상으로 인정여고가 호명될 때까지 인정여고에서 나온 사람이 나 혼자라는 걸 알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시상식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앞으로 나가면서 가슴졸이던 시간들을 생각했다. 다른 백일장과는 달리 긴 분량의 소설을 써서 예심을 통과하고 백일장을 치르기까지의 긴 시간들... 너무나 많이 기다렸고 준비했었다. 많이 써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수업시간에까지 습작을 했었다. 자꾸만 가는 초침을 원망하며 정말 뽕뽕뽕뽕이 서내려갔다. 내 글에 대해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참가한 것에 의의를 두자고 체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입상을 하고 조해룡 교수님의 열심히 하라는 격려를 들으면서 실감안나는 현실을 그제야 느낄 수 있었다. 교수님의 격려에 눈물을 흘릴것하면서 이것이 시작이라라는 생각을 했다.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싶다.

우수작

달바라기와 지란지애
하지혜(인성여고 3)

"아빠, 빨리, 나 오늘 일일반장이라 말야"
벌써 미운 일곱살이 된 내딸 수정이. 평소엔 그렇게 능글능글하던 애가 웬일로 부지런을 떠나 했더니, 유치원에서 일일반장을 맡았나보다. 나는 내 주역 하나가 들어갈까 한 노란 모자를 수정이의 양정맞은 머릿통에 고정시켜주고 차키를 손에 들었다. 빨리 가자고 보체는 말을 옆에 태워 안전벨트를 매주고 시동을 걸었다.

유치원에 도착하자 수정이는 건성으로 내 볼에 뽕뽕하고는, 활짝 웃으며 문앞에 단정히 서있는 선생님에게로 날듯이 달려갔다. 수정에게 있어 1순위가, 이제는 부모에게서 선생님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새삼 느끼면서, 밀려오는 씁쓸함을 접어두고 나는 시장으로 향했다.

오늘은 내 아내이자 수정이의 엄마인 혜련이 한달간의 미국행에서 돌아오는 날이다. 혜련이 좋아하는 음식은 오징어덮밥, 상심해보이는 물오징어를 두마리 사고 과일 몇종류와 나물반찬을 주섬 주섬 사다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나는 재빨리 근처 서점에 들러 '달바라기의 지란지애'라는 신간 시집을 한권 샀다. 내돈으로 내 시집을 사보자는 이번이 또 처음이다. 서둘러 집에 돌아와 오징어 삶을 물을 얹어놓은후, 아가 산 시집 첫장을 펴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내 소중한 달맞이꽃 애인에게.....'

서울에 살던 나는 아버지의 사업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때 강원도 ○○○ 이사를 가게 되었다. 처음 대하는 낯선 도시, 시골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동네, 학교, 새 친구들...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나는 차차 적응해갔다. 새로 다니는 학교에서 나는 점차로 새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그들의 순박함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며칠을 지내다보니 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학 온 나도 한 친구들과 금세 친해져 웃고 떠드는데 유독 한 어린이가 홀로 떨어져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반 아이들이 그 여자애를 술을 피하고 멀리하라는 눈치 없는 도시 남자아이의 눈에도 보일 정도였다. 그때는 언젠가 혼자였다. 밥도 혼자 먹고 과자집이나 음악실에 갈 때도 계속할 때 늘 외톨이였다. 나는 그런 애가 너무나 외롭고 가련해 보였다. 예뻐보이지만 창백한 그애의 얼굴에 한 점의 미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안타까웠다. 그래서 자꾸 말도 걸고 친해보려고 애를 썼다. 그애는 처음엔 나의 친질이 의외라는 듯 당황하다가 점차 나와 이야기도 곧잘 하게 되었다. 나와 함께 있을 때 그애는 밝게 웃었고, 그리도 환한 그애의 얼굴에서 나는 그애가 좋아서 혼자 다니는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반 아이들이 어째서 그런 밝은 웃음소리를 가진 아이를 따돌리는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반아이들 몇명이 내 자리로 다가와 잡담을 늘어놓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기 시작했다.

그애, 혜련이는 문동이의 병균을 온몸에 묻혀다니는 아이라고, 문동이 엄마, 아빠를 가진 끔찍한 아이라고... 나는 알게 되었다. 왜 혜련이가 입때돼 외톨이로 다녀야 했는지... 아이들은 혜련이와 이야기하거나 밥을 같이 먹으면 침을 통해 문동병이 전염된다고 치를 떨며 말했다. 문동병이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는 무지스러운 나이, 열두살의 아이들이었다. 교실 구석에서 소란이 일어난 것은, 혜련이가 책상사이의 좁은 통로로 지나가다가 누군가의 팔을 슬쩍 통로로 지나가다가 누군가의 팔을 슬쩍 스친 모양이었다. 그애는 혜련이의 손가락이 닿았다고 불렀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혜련이는 그애의 말도 안되는 비난에 아무말도 못하고 창백한 달맞이꽃처럼 서있기만 했다. 혜련이의 주눅들 모습에 더욱더 의기양양해진 그애는 자기손이 더럽혀진다고 필통을 손에 들고 그것으로 혜련이 얼굴을 찔렀다. 혜련이는 주춤주춤 밀려나다가 갑자기 '흑' 소리를 내며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교실밖으로 거칠게 달려나갔다. 그순간 나는 내 주위에 모여 혜련이 험담을 하던 아이들을 밀치고 정신없이 혜련이 쫓아나갔다. 누가 그들에게 그녀를 욕할 자격을 부여했는가, 부모의 병이 그녀의 낙인이라고 되는가... 나는 가까스로 혜련이 붙잡고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는 내 어깨를 축축하게 적시며 엉엉 울어댔고 나는 오빠라도 된듯이 그녀를 꼭안았다.

이제 혜련은 혼자 아니었다. 혜련과 나는 그 이후로 늘 함께였다. 나는 다른 아이들이 그녀를 놀릴 때 방패마가 되어서 그녀를 놀리지 못하게 했고, 따돌리려 하면 혜련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내가 온갖 역할을 했다. 둘이 사나고도 열려라 끌려라 놀림을 받아도 좋았다. 너역시 문동병에 걸리고 말자라고 위협을 당해도 좋았다.

혜련의 그 가냘픈 얼굴에 미소만 짓게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이들은 혜련의 참모습을 알아가면서 그녀를 옛날만큼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혜련도 점차로 폭폭 늘어났던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혜련과 나는 집에 갈때면 항상 서로의 손을 고평 잡고 재갈때마다 가다가 혜련의 집 근처의 개울다리에서 헤어졌다. 혜련과 내가 방바닥 개울다리 앞에서 헤어지는게 너무나 아쉬워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문득 눈을 들어보면 까만 하늘에 그림처럼 달이 떠있곤 했다. 그러면 우리 나란히 개울다리에 앉아 달바라기를 하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름다운 밤의 모습과 달맞이꽃 같은 애잔한 혜련의 모습에 나는 아찔하기도 했다. 혜련에 대한 사랑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나는 어린 마음에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토록 친했고, 텔레타 멜 수 없는 사이가 된 혜련과 나였지만 혜련은 1년이 지나도록 나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 개울다리 너머가 문동이촌이란 사실을 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말할길 겁내는 혜련의 어린 마음을 도한 나는 알고 있었다. 전에 한 번 나는 그 개울다리 앞에서 집에 한번도 초대 안할거라고 장난스레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때 혜련은 거의 색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했다. 나는 그후로 무의중이라고 혜련의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않기로 결심했었다.

그러던 어느날 여느때처럼 혜련과 깔깔대며 개울다리 앞에서 헤어지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구름도 없는 하늘에서 후두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난폭하리만큼 폭작 퍼부어오는 장대비가 되었다. 우리는 급히 나무밑으로 비를 피해 들어갔다. 나는 웅얼이 되었다. 혜련의 집은 개울을 건너면 곧장이지만 나는 30분이나 걸어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어땠나고 발을 동동구르는 내게 자신의 집에 가서 옷이라도 말리고 비가 그치거든 가라고 혜련이가 말한 것은... 그말을 듣는 순간 나는 쏟아져내리는 비만큼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날 그녀의 집에 가서, 손에 봉대를 잡고 있는 것과 앞머리로 이마를 덮어 눈썹이 없는 것을 감춘 것 외에는 보통사람과 다름이 없어보이는 혜련의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었다. 그후로 나는 그녀의 집을 취방구리 제집드나들 듯 했고, 그녀와나의 마지막 남은 벼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나는 결혼을 해서 벌써 일곱살이 된 딸이 있는 아저씨 시인이 되었고, 혜련은 전세계를 발로 뛰며 바쁜생활을 하는 아줌마 중년기자가 되었다.

열두살때부터 20년이 빠지는 오늘날까지 아저씨와 아줌마는 우정을 키워 사랑을 하고, 사람이 성숙하여 된 우정으로 부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어려울때 만난 사람은 웬만한 일로는 쉽게 갈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의 살아있는 증거가 혜련과 나였다. 우리가 다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혜련의 바쁜 생활은 아이와 나를 외롭게 만들었고, 그것은 한때 서로를 애중에 휩싸이게도 했었다. 그러나 달바라기를 하며 키워온 그녀와 나의 세월은 우리를 혈육보다도 끈끈하게 이어주는 끈이었다. 그녀는 이제 내게 불타는 사랑이기보다는 잔잔한 애정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친구같은 아내였다.

'...혜련아, 사랑해. 달바라기 민혁이'

나는 펜을 내려놓고 시집을 덮어서는 식탁한쪽으로 조용히 밀어두었다. 물이 끓고 있었다. 나는 장바구니에서 오징어를 꺼내 팔팔 끓고 있는 물에 넣었다. 그리고 셀러드를 만들기 위해 장바구니에서 과일을 꺼내놓고 깎기 시작했다. 예쁘게 세팅해놓은 식탁에는 이미 나물반찬이 소담하게 담겨 놓여있었다. 분위기 낸담시와 같이놓은 꽃무늬 식탁보, 한가운데 놓인 장미꽃 한송이와 빨간 양초... 나는 만족스레 내 작품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짧게 탄성을 지르며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다. 취재때문에 미국에서 오늘 돌아와 축하를 건네주는 것이 뻔한 내 아내 혜련에게 첫인사를 빌로 해야할까... 잘지냈나? 피곤하지? 나보고싶었어? 애라 모르겠다.

'혜련아 네 좋아하는 오징어볶음밥 해줘요.'

나는 달보다 환한 미소의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을 볼 수 있었다.